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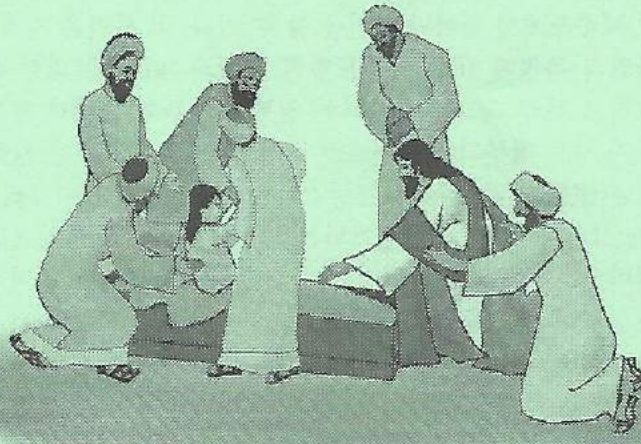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0주일

제36권 28호(다해) 2016년 6월 5일

[묵사]



<절은이야, ... 일어나라.>

‘측은지심(惻隱之心)’

‘측은한 마음’

“울지 마라”.

위로하시는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주검에 손을 대서서 죽은 이를 살리시고,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한가운데로 가시는 것.

고통과 죽음 속에서, 또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나아간다는 표식.
그분의 자비와 사랑,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
이로써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과 희망으로 살수가 있는 것.

중요한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그 고통을 친히 함께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동참,
하느님 나라 건설에 직접 참여.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평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2. 문호 개방기의 교회(1882~1911년)

2-2. 교안(敎案)의 발생

이 당시 발생한 불행한 교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방관의 착취와 폭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외세'에 대한 반발, 그리고 하급 관리들과 결탁한 일부 신자들의 위압적 행동 따위가 서로 결부되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사건은 강화 진위대(鎭衛隊)의 출동과 프랑스 군함의 개입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700여 명의 신자와 예비신자들이 민란 참여자에게 학살당했고, 민란에 참여한 도민 200여 명도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건의 마무리 과정에서 민란의 주도자인 이재수(李在守) 등 3인은 사형을 당하였다. 당시 교회는 선교사 두 명의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여 철저히 관철하였다. 이에 따른 배상금 5,160원은 제주도민 4만여 명에게 개인당 15전(錢) 6리(厘)씩 분할 징수하여 거두어들였다. 이 피해 배상 요구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행된 것이다. 반면에 학살당한 신자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했고, 1903년에 이르러 그들을 위한 매장지가 겨우 마련될 수 있었다. 제주 교안의 과정에서 외적 피해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교회나 제주도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치유되지 못하였다.

2-3. 신앙생활의 전개

개항기 교회는 신자 수가 급증하는 한편 전통 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그렇지만 신앙의 자유를 쟁취한 교회 안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이 활력은 교회 문화와 신심의 고양을 통해서 강화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개항기 교회는 1882년 교육 사업에 착수하여 인현서당(仁峴書堂)을 창설해서 신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학교는 흔히 최초의 근대 학교로 불리는 원산학사(元山學舍)보다 1년 먼저 창설되었다. 또한 교회는 1885년 서울 곤당골(美洞: 현재 중구 을지로 1가 부근)에 건물을 구입하여 보육원을 세워 23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양로원도 건립하였다. 이 보육원과 양로원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근대적 사회 복지 시설이다. <계속>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18	218	313
봉헌	259	259	268
성체	304	304	304
파견	240	240	218

토요 저녁 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생) 김옥 안토니오 & 김행선 올리아나, 곽수민 히메리오
주일 학생 미사	(연)
	(생) 이레지나, 최경숙 수산나 가정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이용식 베드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아나, 서성용 베드로, 김중선 올리아, 김상진 토마스, 송봉현 요셉, 현시영 요셉, 고준희 제임스, 낙태아들, 이수정 마리아, 박창진
	(생) 김상근바로로 & 김여희 마리아나, 황윤재 베드로 가정, 티파니린 요세파나, 전태준, 전태경, 전재욱 보나벤투라 가정, 전재용 안토니오 가정, 전병창 프란치스코 가정, 송영미 베로니카, 임명희 쥘마, 박지상 아우구스틴 가정,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권(Kings) 17,17-24

화답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

○주님께 충실한 이돌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 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 2독서 갈라티아서(Galatians) 1,11-19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루카 (Luke) 7,11-17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루카 7,16)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들 이야기하나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외아들,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마음속에 묻어야 하는 어머니, 나인이라는 고을의 과부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있어 힘들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였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녀, 아니 죽은 아들만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울지 마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은 건넨 다음, 그녀의 죽은 아들에게는 "일어나라"고 이르십니다. 주님은 일어나 앉아 말을 하는 그 젊은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나 그녀의 친지들이 주님께 요청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과부를 보시고, 그녀의 딱한 처지에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죽은 외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놀라운 힘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께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루카 7,19)라고 묻는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할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루카 7,22-23)

이제 나인 고을의 사람들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루카 7,16)고 환호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이 다 아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고, 때로는 남에게 말 못 할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나인의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딱한 처지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 십니다. "생명의 영도자"(사도 3,15)이신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통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함께하십니다.

과부와 외아들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자비로운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님의 시선' 이 머물 사람, 머물 곳은 어디일까요? 당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과 함께 누구에게, 어디로 갈까요?

◆조성품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성인 말씀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 복자 마더 테레사 -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손석 스테파노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
 ☆ 교회는 매년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정하여, 예수 ☆
 ☆ 성심(聖心)을 공경하는 신심 행사를 통해 성심의 ☆
 ☆ 신비를 묵상하도록 합니다. ☆

- ◆ 본당 신부님 사제연수 참석
 - 일정 : 6월6일~6월10일
 - 이 주간에 평일 미사(화, 목, 금) 없습니다.
 - 월요일(6일), 수요일(8일) 미사는 있습니다.
 - 본당 신부님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 2016년 백삼위 성당 '영성 피정'중에 있습니다.
 - 오늘 주일 (5일): 오후1시~6시까지
 - 주제: 신앙 성숙과 쇄신을 위한 영성 피정
 - 강사: 강 요셉 신부 (구속주회)
- ◆ 첫 영성체 안내
 - 첫영성체 대상자 참고: 10일(금요일) 오후 4시30분
 - 리허설/세례식 : 6월11일(토요일) 오후 3시30분
 - 첫 영성체 : 6월12일(주일) 11시 미사중

- ◆ 본당 주일학교 교장 및 교사초빙 안내
 우리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주일학교 교장과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어를 꼭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2016 Korean Language Class Scholarship
 이연준 (9학년) - King Sejong Award 수상
 - 한국학교 2학기말 시험 - 6월 5일
 - 시상식 : 6월 19일 종업식 중.
 - SAT II 한국어 시험 준비반 여름 특강
 - 일시 : 6월18일 ~8월7일 (7월 2일 제외)
 - 매주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30
 - 신청마감 : 6월 12일 (일)
 - 백삼위 한국학교 2016-17년도 1학기 등록 접수
 - 6월 19일까지 접수시 20% 할인혜택
 - 2015-16년도 한국학교 종업식
 - 장소 : 강당
 - 일시 : 6월 19일 오후 1시30분 ~ 3시
- 문의사항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5일(주일) : *소공동체(김밥\$4, 사발면 \$2)
 * 주일학교(8,10 학년: 짜장면)
- 6월12일(주일) : *토남1,2반(소고기무우국 \$3)
 * 주일학교(자모회: 첫 영성체 축하 캐이더링)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천용 구자운 김관기 김교복 김 명 김성택 김성현 김영덕 김원모 김정선 김형순 박종열 성낙호 성미선 송재훈 양영관 오상준 오세원 유보나 유철희 이명렬 이병우 이종선 이현주 조소영 조준제 최태훈 한창주	성전헌금	교천용 구자운 김관기 김교복 김 명 김영덕 김원모 성낙호 양영관 오세원 유철희 이명렬 이병우 이현주 조준제 최태훈 한창주
	합계:\$3,910		합계 : \$2,350
주일미사헌금 : \$2,337			

◆ 온라인 비즈니스회사 채용공고

- CS/Inventory/Marketing 부분
- 관심있는 교우 분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 보내 주세요.
- buy2korea03@nate.com 담당자 : 서혜미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 ✠

남가주 소식

◆제 6회 유빌라테 성가단 정기 연주회

- 영적지도 : 토마스 레이놀드 신부, 지휘자 : 김클라라
- 일시 : 6월 11일(토) 오후 7시 30분
- 장소 : St. Vincent De Paul Catholic Church

621 W. Adams Bl. Los Angeles, CA 90007

◆6월 말씀과 함께하는 피정

- 주제 : 지혜서, 아가페서
 - 일시 : 2016.6.4(토)오전10시~ 오후5시
 - 장소 : 남가주 기톨릭 성서모임(CBLM)
-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문의 : 714-521-1345

◆제 22차 남가주 선택주말(Choice Weekend)

- 대상 : 24~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남녀
- 일시 : 8월 12일(금) ~14일(주일)오후
- 참가비 : \$300(반액은 본당지원 함)
- 신청마감 : 6월 25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신호진 구네군다(213) 503-7909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 수련

- 지도 : 예수회 최준열 다미아노 수사
- 일시 : 2016.6.4~2017년 3월초,매주 토2시~5시pm
- 장소 :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문의 : 정 도로테아(818)321-9505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순자 비비안나 6/9(목)오후4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6/11(토)오후6시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6/17(금)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대우 비오 6/25(토)오후5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오상준 토마스 6/11(토)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우영희 엘리사벳 6/17(금)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방지거 6/17(금)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 6/14(화)오전11시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김유미 사비나 6/18(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정명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미엘 클라라 6/19(일)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린 마리아 749-3151 6/11(토)오후7시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송재훈 필립보,377-4219 6/10(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정판영 레오 6/11(토)오후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 루시아 562-355-0499 6/4(토) 오후6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4(화) 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나의 약속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결국은 주님께 돌아가야 할 유한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게는 좌우명처럼 받드는 몇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쁘게 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항상 웃는 낮이냐고 묻습니다. 나는 꼭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쁜 낮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좋은 일도 생기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기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열심히 칭찬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칭찬 받을 일이라곤 없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그런 사람일수록 칭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른길로 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합니다. 칭찬해주는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정과 사회를 밝게 하고 나 자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셋째는 옳은 일은 열심히, 그것도 밀어붙이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밀어붙인다’는 표현이 거슬릴지 모르지만, 옳은 의미에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활력을 가질 수 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팔순을 눈앞에 두고 보니 ‘무소유’라는 말이 땀땀합니다. 그리고 자꾸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두 분이 같은 해에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야말로 별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나와 아내를 많이 위해주셨고, 부부가 여행을 떠나는 데도 아무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곤 했기 때문에 더욱 그립고 가슴이 아픈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준비하는 것은 진정으로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80세를 가까이 살아오면서 크나큰 불행이 없었던 것도 하느님의 보살핌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을 허락하는 것 역시 하느님께서 ‘이제부터는 욕심부리지 말고 봉사하면서 살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그 뜻을 조용히 따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감았을 때 하느님 앞에 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대령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분들을 비롯해 가족,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 김현 요셉 / 전 시그니스 회장

[교리상식]

세례명은 어떻게 정하고 영명 축일은 무엇인가요?

☞ 세례명이란 세례성사를 통해 받게 되는 영적인 이름이기에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세례명을 정할 때는 성인의 행적이나 영성이 자신의 삶에 좋은 모범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생 동안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보호받으며 그분의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자신의 세례명으로 정한 성인의 축일을 자신의 영적인 생일, 즉 영명 축일이라 합니다.

◆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딸

[길을 찾는 그대에게]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 다 누리다가 하느님 품으로 가고, 어떤 이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느님의 공평하심을 믿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 불공평과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비아냥이 그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불평등이야 인간들이 저지른 일로 치더라도, 한 개인의 삶 전체가 태생적으로 불공평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힘이 듭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어, 잘생긴 데다가 똑똑하고 건강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반면, 어느 누구에게는 질병, 장애, 가난 등 좋지 않은 것들 전부가 모여 있는 삶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공평하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진짜 신앙 또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절대자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는 분, 어떤 이에게는 한없이 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참담한 결과만 허락하시는 하느님은 절대자도 전능하신 분도 아닌, 그저 내가 만든, 내 생각 속의 하느님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계 너머에 계시는 분이 진짜 하느님입니다. 그 초월의 하느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을 훌쩍 뛰어넘는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되찾은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큰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형제는 아버지 덕분에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형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동생은 반항아였습니다. 보통 형제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들은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5,11-12

아버지는 작은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아들은 돈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동안 돈을 물 쓰듯 쓰며 술과 쾌락에 취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종한 생활과 함께 가진 재산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고장에는 심한 기근이 들어,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작은아들은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5,13-19

작은아들은 완전한 파멸을 이루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최악의 상태가 되니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의 품팔이꾼이 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아들이 가없는 마음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큰아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5,20-32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언제나 연민과 자비로 끝까지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을 벌하기 보다는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과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루카 15,20-21)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 한다.”(루카 15,32)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이제야 알겠네

바라는 게 하나 둘이었으랴.
남모르게 키운 야망도 있었네.
아닌 척 했던 거지 꿈인들 작았겠나.
꿈에 한번 돌아보겠다고 많은 날 아등바등했지만
결국은 남들처럼 나일 먹고 이제는 평범하게 늙어가네.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늙어갈 수 있으니
아, 참으로 다행이다.

-이영 아네스-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열리사렛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안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 #1110 LA(에퀴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켈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B965889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MAIN OFFICE (FD1648)	South Bay Office (FD2253)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해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